

1. 서론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96년 코스닥의 설립, 97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특히 작년 말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코스닥으로 몰리자 벤처과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었다. 매일 주식시세를 점검하고 주가변동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사회적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누가 몇 십 배, 몇 백 배 벌었다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했다. 대학에서도 창업을 위한 휴학이 급증했고, 벤처기업으로의 대대적 인력이동,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욕의 저하, 중소기업의 위축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벤처현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금년 4월이래 코스닥의 주가가 폭락하고 활발한 투자를 보이던 인터넷 기업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되면서 벤처자금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프리 코스닥과 코스닥에 50조 가까운 자금이 묶이면서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벤처에 투자한 개인자산의 손실은 소비의 위축과 함께 사회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자금유동성 저하는 벤처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켜 도산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IMF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찬사를 받던 벤처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처럼 폄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현대사회가 좌로나 우로 치우쳐 요동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벤처현상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극도의 부침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크리스찬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생각해봄으로써 우리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벤처현상에 대한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벤처시대 도래의 원인

벤처시대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하고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활동이 많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도래된 첫 번째 이유는 80년대부터 산업기술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기반을 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공립 연구소 중심의 기술개발에서 80년대 민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민간연구소의 설립이 활발해지고 기술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술력이 향상되어 왔다. 이러한 기관들은 배태조직(incubating organization)의 역할을 하면서 90년대 벤처창업붐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 함께 KAIST,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산학협동 등이 기회의 원천이 되었다. 메디슨, 터보텍, 휴맥스 등이 이러한 유형의 창업에 속한다.

둘째, 미국에서 발생한 벤처현상의 파급이다. 미국은 1950년대 이래 여러 차례의 벤처붐

이 있었다. 이는 20세기 후반 기술혁신과 흐름을 같이 했다. 반도체와 컴퓨터, PC,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의 기술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창업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기술은 전자, 전기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공학, 생명공학, 기계금속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신기술이나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창업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 투자한 자금이 고수익을 실현하면서 활발한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벤처창업에 적합한 생태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과 일본 등에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제도적 여건상 미국과 같은 붐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90년대에 미국의 붐에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과 대만의 벤처창업이 활발해지고 성공적인 모델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구 소련 붕괴후 과학기술자가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해 오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벤처캐피탈과 인큐베이터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국내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대만은 신주단지를 조성하여 벤처붐을 일으켰다. 대만도 실리콘 벨리에 있는 화교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글로벌화된 벤처기업을 육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벤처붐 조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셋째, 벤처캐피탈 시장의 형성이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조성을 위하여 1986년 창업지원법을 제정하여 민간벤처캐피탈의 설립을 촉진하였다. 그 결과 수년만에 50여개의 창업투자회사라 불리는 벤처캐피탈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투자할만한 유망 벤처기업이 부족했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투자한 자금에 대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회수시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은 정부에 3부 시장의 설립을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못하다가 96년 장외거래시장인 코스닥이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벤처캐피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코스닥은 설립되자 등록된 몇 개의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자금이 몰리게 되었다. 이를 1차 코스닥 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97년 경제위기의 조짐과 함께 주가가 급락하고 IMF의 한파속에 코스닥 시장은 얼어붙게 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코스닥 부양책을 썼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99년 4월부터 시장이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4월에 100을 넘어선 코스닥 지수가 7월에 200을 넘어서 10월에 250선을 육박하자 투자과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우사태로 인하여 잠시 주춤하던 지수는 연말에 270선을 돌파하였다. 시가 총액기준으로 연초에 7.8조였던 코스닥이 연말에 106.3조로 1년간 13배 성장했다.

이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된 원인은 IMF 인하여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위기극복의 조짐과 함께 되살아 나면서 부동산 경기침체, 저금리 등의 요인에 의해 코스닥 시장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신경제에 대한 기대속에서 하이텍, 인터넷 관련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고 여기에 작전세력까지 가세하여 투기장세가 형성되었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자금시장으로 인하여 창업붐이 일어나고, 단기간에 고수익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기대속에 자금과 인력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넷째,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80년대 중반부터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의 미숙으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코스닥의 설립,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세제와 금융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특히 98년 경제위기속에서 창업자금의 공급을 늘려서 창업붐을 일으키는데 기여했으며,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자금난에 몰린 벤처기업의

생존을 지원했다. 스톡 옵션, 벤처기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등은 인적자원의 공급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별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실험실 창업제도의 도입 등도 창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의 금융, 세제, 인력, 입지 등의 지원은 벤처붐을 일으키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IMF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 창업활성화 정책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벤처육성 정책이 실업대책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적으로 적합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지난 4년간 정부주도의 벤처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였다. 정부가 벤처에 대해 강조를 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반벤처정서를 나타내게 되었다.

다섯째, 우수인력의 벤처이동이다. 인력의 이동은 벤처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한 사회의 변화는 사회의 주요 인적자원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사회의 인력이동 현상은 임계점을 넘어서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벤처로의 인력이동이 활발해진 이유는 성공모델의 출현이다. 1세대 벤처기업인들 가운데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언론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스닥의 붐과 함께 주가기준으로 평가된 벤처기업인의 개인자산이 재벌기업의 회장을 능가하는 현상이 초래되면서 일반인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가치기준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을 잃기 시작한 대기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벤처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스톡 옵션제도는 실리콘 밸리와 같이 직장인으로서 백만장자의 꿈을 가능하게 하였다. 보상면에서 기존의 대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은 창의성과 자율성, 유연성과 활력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매력적인 성장 기회로 인식되게 되었다. 더욱이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선배 직장인들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목격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었다. 과거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대상이 되었던 창업기업이 오히려 매력적인 기회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3. 시대적 의미

벤처현상은 다양한 시대적 의미를 주고 있다. 첫째는 창업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활성화다. 이미 미국은 '조용한 혁명'(silent revolution)으로 표현되듯이 70년대 말부터 벤처창업붐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90년대 와서 정보지식화의 물결속에서 형성된 '기회의 창'(opportunity window)을 향하여 달리는 새로운 기업의 탄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경제구조와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통적 대기업의 상대적 약화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기업이 새로운 질서 형성의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아이디어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과거 효율성 주도의 경영패러다임이 창의성 중심으로 옮겨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둘째, 과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왔던 산업경제시대의 쇠퇴와 새로운 지식경제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벤처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혁신활동의 급속한 증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현이다. 전 세계는 하나의 통신정보 권역으로 묶여가고 있으며 디지털과 인터넷이 광속사회를 펼쳐가는 핵심원동력이 되고 있

다. 지식들이 융합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핵반응을 일으키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지식기반 핵심역량을 구축한 기업들이 신경제의 주도세력이 되고 있다. 고학력의 지식인들이 창업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창업패러다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신뢰와 투명성이 기업생존의 핵심이 되고 있다. 과거의 창업모델은 기업가가 기회를 발견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전담하는 형태가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직장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개인자금과 차입금이 창업자금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창업은 실패하는 경우 기업가가 모든 위험 부담을 지며 그 피해가 개인은 물론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선 주위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사업실패가 인생실패로 확대되기 때문에 보다 좋은 직업의 대안이 있는 고학력자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창업모델이 바뀌고 있다. 벤처창업은 위험전담형 창업이 아니라 위험분산형 창업이다. 용자가 아닌 투자위주의 자금조달로 인하여 기업가와 투자자가 위험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투자자산의 회수로서 이는 배당이나 주식가치의 상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M&A나 코스닥 시장에 주식공개를 통하여 가능하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가가 자금을 성실하게 기업 경영에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신뢰와 투명성이다. 벤처기업은 이러한 요소가 없으면 투자자나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자금조달과 성장이 어렵다. 따라서 벤처시대는 신뢰와 투명성에 의한 경영과 사회질서가 핵심 성공요인화 하고 있다.

4. 기독교적 이해와 대응

벤처시대의 도래를 말씀가운데 찾아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구절이 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것은 교통통신 발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통신의 발달은 거리의 소멸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지식이 더하리라’라는 말씀은 현재 지식 폭발 현상과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류사회의 미래를 바꾸리라고 예상되는 인터넷 혁명은 지식혁명과 통신혁명이 결합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벤처열풍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첫째 투명성과 신뢰에 기반을 둔 정직한 기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환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라는 구조적 모순속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 세상방식으로, 신앙은 성경적으로라는 이원론적인 행태가 보편화되었다. 정직한 경영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좌절을 경험하는 기업인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투명성, 원칙, 본질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도 제도적인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벤처시대를 통하여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열려진 두 개의 창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 디지털 경제사회, 인터넷 시대로의 거시적 흐름가운데 열

려진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ies)과 미전도 종족이 집중된 선교의 창(10-40 window)에서 서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수단중의 하나가 기업을 통한 선교다.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소자본 창업 방식이 아닌 벤처기업을 통한 선교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중국, 동남아, 중동 등에 국가에서 우호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민족들이 대다수인 지역에 정직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기업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후진사회의 발전과 함께 선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벤처시대는 사업기회의 창과 선교의 창을 연결시키는 시대(window to window)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성장의 동인으로서 기술과 지식을 핵심역량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창업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에서 총족되지 못한 성취욕구 및 새로운 조직문화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도전해 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창의성을 온전히 발휘하여 벤처시대의 주도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할 뿐 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생산활동을 통하여 창조세계를 풍성하게 해야 한다. 안정되고 보람된 일터를 제공하여 기업을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벤처시대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인 눈으로 부정적 요소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함께 빈부격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digital divide) 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소득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과 함께 자발적 나눔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염려해야 할 점은 벤처열풍은 소비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문화의 물결과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벤처를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벤처는 자본주의적 시장창출과 경쟁방식의 극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벤처의 발전은 인간의 편의성도 가져오지만 향락과 소비를 자극하여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좇고, 조급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의 도래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이 많아지면 인간의 교만도 높아지면서 하나님 없이도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러한 시대에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다. 세상 지식이 부를 창출하고 성공을 가져 온다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헛되고 헛된 것임을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매일 확인하고 결단하는 경건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상지식을 해석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을 통한 부의 창출을 하고 이를 선한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나 기업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인은 지식을 창조, 전파, 활용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끼리 지식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각 지체 및 조직간에 나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새로운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 및 교계에서는 성경적 세계관, 기업관 및 경영관을 갖춘 미래의 벤처기

업인들을 길러내야 한다.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신앙과 삶을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새로운 기업과 경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실업인과 직장인에 대한 교육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상호연결을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강화되어야 한다. 선배 기업인들이 후배기업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선배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그룹의 형성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과 역사관을 바탕으로 시대를 조명하고 해석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실천해 나가야한다.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지식체계를 가다듬고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독교 리더십과 인재개발에 힘써야 한다.